

KB금융, 9년만에 ‘리딩뱅크’… 하나금융, 첫 2兆 클럽

<연결당기순이익>

시중은행 이번주 2017실적 발표

금감원서 내부유보 확대 요청
IFRS9도입에 ‘자본확충’ 부담
은행, 당국 압박에 고배당 눈치

이번 주 주요 시중은행들이 2017년 연간 실적을 발표한다. 은행들은 지난해 대출 성장 등에 힘입어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 당국의 압박과 IFRS9 도입 등으로 고(高)배당은 어려울 전망이다.

6일 금융정보제공업체 애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하나·DGB금융지주가 발표한 2017년 연간 당기순이익과 KB·신한·우리·JB·BNK 지주의 연간 순익 전망치는 총 11조4610억원으로 전년(8조7142억원) 대비 31.5%(2조7468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하나금융은 지난해 처음으로

<주요 은행 2017년 연간 당기순이익 전망치>

은행명	2016년			2017년 추정치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KB금융	100,219	16,769	21,902	114,522	39,126	33,695	14.3	133.3	53.8
하나금융지주*	83,818	16,141	13,997	—	27,181	20,368	-	68.4	45.5
우리은행	85,123	15,742	12,775	85,961	21,670	16,495	1.0	37.7	29.1
JB금융지주	16,260	2,527	2,019	17,854	3,468	2,674	9.8	37.2	32.5
신한지주	112,363	31,086	28,249	117,611	41,958	32,898	4.7	35.0	16.5
DGB금융지주*	17,390	3,869	3,019	—	4,110	3,163	-	6.2	4.8
BNK금융지주	32,565	7,123	5,181	33,701	7,078	5,318	3.5	-0.6	2.6

*하나, DGB금융지주는 공시한 수치

/자료=애프앤가이드

‘2조 클럽’에 진입하며 설립 이후 최고 실적을 올렸다.

하나금융의 2017년 연간 연결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53.1% 증가한 2조368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4958억원으로 전년 대비 448.5% 증가했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며 은행 충당금은 줄고 이자와 수수료 수

익은 늘어난 영향이다.

KB금융은 설립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신한금융을 제치고 ‘리딩 뱅크’ 자리 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증권사들은 KB금융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이 3조 2695억원으로 전년 대비 53.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한금융의 연간 순이익은 3조2898억원으로 전년 보다 16.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2조368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전년 보다 45.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방은행 중에선 BNK금융지주의 순이익이 5318억원으로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6년 대비 2.6% 증가한 규모다. JB금융지주는 전년 대비 증가폭이 가장 클 것으로 봤다. JB금융의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은 2674억원으로 전년보다 32.5%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DGB금융지주는 전년 보다 4.8% 오른 3163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지난해 은행들은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실적 성장 가도를 달렸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 데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본격 규제하기 직전 대출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실적 잔치’에도 고배당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시중은행에 2019년 IFRS9 도입에 따라 고배당을 자제하고 내

부유보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IFRS9은 대출의 실제 만기까지 예상되는 손실을 추산해 미리 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회계기준으로, 이 규제가 도입되면 은행들의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진다.

여기에 올해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등 가계대출 규제가 더 강화돼 지난해와 같은 실적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불거진 은행들의 채용비리 사태로 인해 불분명해진 CEO(최고경영자) 겨취도 실적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CEO 리스크에 따른 주가 하락과 M&A(인수합병) 타격 등이 예상되기 때문. 검찰 수사 결과 은행의 채용비리 혐의가 인정되면 당국은 예고했던 대로 CEO의 해임을 권고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 금융사와 금융 당국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금융사들이 당국의 ‘고배당 자제’ 요청을 외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은행聯, 블록체인 공동인증 시스템 구축

신년간담회서 중점 추진 사업 발표
자금 중개·기술 금융 활성화 나서

은행연합회가 은행권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블록체인 공동인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은행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희망 국가를 대상으로 MOU(업무 협약)도 체결해 나간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6일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금융연수원·국제금융센터·신용정보원과 함께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은행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데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그는 “은행 구조조정 영향으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됐다가 지난해부터 일부 회복됐으나, 은행산업은 여전히 경기 변동에 취약하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를 개선·지원하기 위해 2018년 중점 추진 사업으로 ▲생산적 금융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포용적 금융을 통한 서민·소비자보호 강화 ▲은행권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은행권 블록체인 공동인증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이 6일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그는 “은행 산업이 우리 경제의 혈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경제 성장의 튼튼한 베�풀목이 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와 기술금융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관련해 사원은행, 당국과 협조를 통해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필요 자금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은행 산업이 글로벌 시장 및 신사업 진출 등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결과적으로 금융 산업이 국민 경제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 마련에 나선다.

김 회장은 “블록체인 공동인증시스템 구축 등 은행권에서 공동으로 IT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줄 것”이라며 “이를 각각 실정에 맞도록 설계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도록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공동인증시스템은 은행권에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 은행에 한 번만 본인인증 정보를 입력하면 다른 은행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이 시스템은 거래 내역의 합의 과정 등을 통해 인증서, 위·변조 감지 등이 가능해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거래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구축사업 중이며 오는 4월부터 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후, 7월 상용화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금융투자업권 등 타업권 연계는 물론 더 많은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은행 산업이 글로벌 시장 및 신사업 진출 등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결과적으로 금융 산업이 국민 경제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채신화 기자

‘하나된 평창 정기예금’ 3000억 추가 판매

KEB하나銀, 조기완판에 특별 증액

KEB하나은행은 ‘하나된 평창 정기예금’이 판매 개시 3개월만에 조기 완판돼 3000억원을 특별 증액해 이달 18일까지 추가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 금융상품 굿즈로서 손님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하나된 평창 정기예금은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가입 기간은 1년제이다.

적용 금리는 기본금리 연 1.90%에 우대금리 연 0.5%를 더해 최대 연 2.40%의 특별한 금리 혜택이 제공된다(2018.2.6기준, 세전). 우대금리는 ▲하나카드(또는 현대카드) 결제실적 보유 연 0.2% ▲스마트폰뱅킹 등 비대면으로 이 예금에 가입하거나 가입시점에 만 65세 이상 손님 또



는 장애인 손님인 경우 연 0.1% ▲대한민국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종합순위 4위 이내 달성 시 연 0.2%로 구성되어 있어 대한민국 대표팀과 선수를 응원하는 재미를 더해 준다.

1년 단위로 3년까지 만기 재예치 서비스가 자동 제공되어 예금의 만기일 관리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재예치시 우대금리 연 0.1%를 특별 제공한다. /김문호 기자 kmh@

평창올림픽 경기장내 결제 현금·비자카드만 사용가능

금융감독원은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구역 내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및 평창조직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현금(원화)과 비자(VISA)사 신용카드(선불카드 포함)로만 결제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VISA 표시가 없는 신용카드나 현금인출카드로는 올림픽경기장 구역 내에서의 결제나 현금인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VISA 표시 신용카드가 없는 관광객이라면 미리 현금을 준비하거나 현장에서 VISA 선불카드를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

VISA 선불카드는 올림픽경기장 구역에 위치한 무인자판기 6대를 포함한 12개 판매소에서 일반 신용카드로도 구매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6일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에서 진행된 선플운동 실천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선동 국회의원(왼쪽부터), 신한은행 위성호 은행장, 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 민병우 국회의원. /신한은행

신한은행 ‘댓글 긍정에너지’ 전파 앞장

선플재단과 ‘선플운동’ 실천협약

신한은행은 (재)선플재단과 ‘선플운동’ 실천협약을 맺고 응원과 배려의 선플(support+reply)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임직원이 선플 활동 참여 시 봉사시간을 인정하고, 은행의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 고객 대상으로 선플운동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선플 마인드를 내재화 할 수 있는 인성교육과 캠페인 등의 활동도 진행하기로 했다.

/채신화 기자

직원들 No! 타이로 업무 효율 높인다

BNK부산은행, 조직문화 개선
책상칸막이 없애는 등 변화추진

BNK부산은행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점 직원을 대상으로 노타이(No-tie) 근무를 실시하고 사무실 책상 칸막이를 없애기로 했다.

부산은행은 지난해 9월 빈대인 은행장 취임 후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은행장 직속의 ‘NEW B 혁신 TF(태스크포스)’를 설치, 다양한 업무 환경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본점에서 실시되는 모든 회의를 종이 자료가 없는 페이퍼리스 회의로 실시하고 있다. 자료가 꼭 필요한 회의에는 태블릿PC를 활용해 회의 전자화 인쇄, 회의 후 자료 파기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창의성을 높여 생산성도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달부터는 매일 본점 전 직원 노타이 근무를 실시하고 사무실 책상 칸막이도 모두 없앨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조직을 유연하게 변화시키고 직급 간 벽을 자연스럽게 허물어 업무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야근 없는 근무환경과 연차휴가 사용 장려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부산은행은 업무혁신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고객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고객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부산은행 전략기획부 관계자는 “은행의 모든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직원과 이용 고객 모두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고객중심 경영을 강화해 새로운 부산은행(New Busan Bank)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채신화 기자